

2018서울시 2회 9급 A책형

아주 자세한 해설, 재미있는 암기tip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블로그나 이메일로...

출력할 때 페이지가 최대한 끊기지 않게 하여서 페이지가 많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1. 표준어끼리 묶인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서울시2회 A책형 문1)

- ① 등물, 남사스럽다, 쌈싸름하다, 복숭아뼈
- ② 까탈스럽다, 결판지다, 주책이다, 겉울음
- ③ 찰지다, 잎새, 꼬리연, 푸르르다
- ④ 개발새발, 이쁘다, 덩쿨, 마실

문제1)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2회 A책형 문1) (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절충 p.302, 400, 412)

- ① 등물, 남사스럽다, 쌈싸름하다, 복숭아뼈 (O)
 - ◆ 등물 - 목물 / 남사스럽다 - 남우세스럽다 - 남세스럽다 - 우세스럽다 / 쌈싸름하다 - 쌈싸래하다 / 복숭아뼈 - 복사뼈 < 모두 표준어임 >
- ② 까탈스럽다, 결판지다, 주책이다, 겉울음 (O)
 - ◆ 까탈스럽다 - 까다롭다 / 결판지다 - 거방지다 / 주책이다 - 주책없다 / 겉울음 - 겉울음 < 모두 표준어임 >
- ③ 찰지다, 잎새, 꼬리연, 푸르르다 (O)
 - ◆ 찰지다 - 차지다 / 잎새 - 잎사귀 / 꼬리연 - 가오리연 / 푸르르다 - 푸르다 < 모두 표준어임 >

- ④ 개발새발, 이쁘다, 덩쿨, 마실 (X)

- ◆ 개발새발 - 괴발개발 / 이쁘다 - 예쁘다 / 마실 - 마을 < 모두 표준어임 >
- ◆ 덩쿨(X) → 넝쿨(O) - 덩굴(O)

☺영보이 암기tip) 넝쿨(**ענק**) - 덩굴(**ענק**)

문제1) 정답:④

2. 문장쓰기 어법이 가장 옳은 것은? (2018서울시2회 A체형 문2)

- ① 한국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하여 일본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 ②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경영 혁신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 ③ 이것은 아직도 한국 사회가 무사안일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듈다.
- ④ 냉정하게 전력을 평가해 봄도 한국이 자력으로 16강 티켓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문제2)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2회 A체형 문2) (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238, 278, 286)

- ① 한국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하여 일본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O)
 -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완벽하며 무정명사(일본)에는 '-에게'가 아니라 '-에'를 쓰므로 이 문장은 옳다.
- ②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경영 혁신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X)
 - ◆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이중피동으로 불필요하다. 따라서 '요구된다'로 바꾼다.
→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영 혁신이 요구된다.
 - ◆ 앞뒤 구조가 같아야 더 좋은 문장이므로 '생산성의'에서 '의'를 빼면 더 깔끔한 문장이 된다. 따라서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이 더 깔끔한 문장이라 할 수 있다.
- ③ 이것은 아직도 한국 사회가 무사안일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듈다. (X)
 -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어색하다.
→ 나는 뉴스를 보면 아직도 한국 사회가 무사안일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 ④ 냉정하게 전력을 평가해 봄도 한국이 자력으로 16강 티켓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X)
 - ◆ 목적어(티켓)에 대응할 서술어가 없다.
→ 냉정하게 전력을 평가해 봄도 한국이 자력으로 16강 티켓을 가져갈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문제2) 정답: ①

3. 6 · 25전쟁과 가장 거리가 먼 소설은? (2018서울시2회 A체형 문3)

- ① 손창섭, 『비오는 날』
- ② 박경리, 『토지』
- ③ 장용학, 『요한시집』
- ④ 박완서, 『엄마의 말뚝』

문제3)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2회 A체형 문3) (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377)

- ◆ '손창섭, 『비오는 날』, 장용학, 『요한시집』, 박완서, 『엄마의 말뚝』'은 6 · 25전쟁(1950년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다.
- ◆ 박경리, 『토지』: 경상남도 하동 평사리 / 19세기 말 ~ 1940년대 후반(해방까지)
- ◎영보이 암기tip) 한국전쟁 어느 비오는 날, 엄마의 말뚝 위에 요한시집을 올려놓았다.

- ① 손창섭, 『비 오는 날』(1953): 6·25전쟁 직후 부산을 배경으로 함. 동욱 남매의 불행을 담은 작품.
- ② 박경리, 『토지』(1969년 집필 ~ 1995년 완간): 구한말부터 일제 강점기에 이르기 까지 한 최씨 가문의 몰락과 재기하는 과정을 담음. 공간적 배경은 경남 하동군 평사리와 용정, 진주, 서울 등 다양함.
- ③ 장용학, 『요한시집』(1955): 6·25전쟁 전후 포로수용소의 사건을 담음. 실존주의적. 사르트르의 「구토」를 읽고 영향을 받은 작품.
- ④ 박완서, 『엄마의 말뚝』(1979): 6·25전쟁을 배경으로 한 한 가족의 비극적 상황.

< 6·25전쟁(1950년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다른 작품 >

- ◆ 이병선의 「오발탄」(1959): 한국전쟁의 비극을 그림. / 1950년대 해방촌(서울시 용산구)
- ◆ 이문열의 「영웅시대」(1982~1984): 한국전쟁(6·25)이 역사적 사건. 시대적 배경(1950~1954)
- ◆ 구상의 「초토의 시」(1959): 한국전쟁(6·25)이 역사적 사건

<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 >

- ◆ 「하얀 전쟁」(1983)(안정효)
- ◆ 「인간의 새벽」(1980)(박영한)
- ◆ 「황색인」(1987)(이상문)
- ◆ 「무기의 그늘」(1985)(황석영)

문제3) 정답: ②

4. '권력의 무상함'을 나타내는 속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서울시2회 A책형 문4)

- ① 달도 차면 기운다. ② 열흘 붉은 꽃이 없다.
- ③ 물도 가다 구비를 친다. ④ 꽃이 시들면 오던 나비도 안 온다.

문제4)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2회 A책형 문4)

- ① 달도 차면 기운다. < 세상의 온갖 것이 한번 변성하면 다시 쇠하기 마련이라는 말 >
- ② 열흘 붉은 꽃이 없다. < 부귀영화란 일시적인 것이어서 그 한때가 지나면 그만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③ 물도 가다 구비를 친다. < 사람의 한평생에는 전환기가 있기 마련이라는 말. >

- ④ 꽃이 시들면 오던 나비도 안 온다. < 사람이 세도가 좋을 때는 늘 찾아오다가 그 처지가 보잘것없게 되면 찾아오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문제4) 정답: ③

5.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8서울시2회 A책형 문5)

< 보기 >

내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어린이들은 원래 북아메리카에는 100만 명가량의 인디언밖에 없었다고 배웠다. 이렇게 적은 수라면 거의 빈 대륙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백인들의 정복을 정당화하는 데 유용했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발굴과 미국의 해안 지방을 처음 밟은 유럽인 탐험가들의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인디언들이 처음에는 약 2000만 명에 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세계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콜럼버스가 도착한 이후 한두 세기에 걸쳐 인디언의 인구는 최대 95%가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디언들이 죽은 주된 요인은 구세계의 병원균이었다. 인디언들은 그런 질병에 노출된 적이 없었으므로 면역성이나 유전적인 저항력이 전혀 없었다. 살인적인 질병의 1위 자리를 놓고 다투었던 것은 천연두, 흉역, 인플루엔자, 발진티푸스 등이었고,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듯 디프테리아, 말라리아, 볼거리, 백일해, 페스트, 결핵, 황열병 등이 그 뒤를 바싹 따랐다. 병원균이 보인 파괴력을 백인들이 직접 목격한 경우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1837년 대평원에서 가장 정교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만단족 인디언들은 세인트루이스에서 미주리 강을 타고 거슬러 올라온 한 척의 증기선 때문에 천연두에 걸렸다. 만단족의 한 마을은 몇 주 사이에 인구 2000명에서 40명으로 곤두박질쳤다.

- 재레드 다이아몬드, 『총·균·쇠』중에서 -

- ① 유럽은 신세계였고, 아메리카는 구세계였다.
- ② 인디언들은 구세계의 병원균에 대한 면역성이 없었다.
- ③ 만단족 인디언들의 인구 감소는 백인들의 무기 때문이었다.
- ④ 콜럼버스 이전에 북아메리카에는 100만 명가량의 인디언이 있었다.

문제5)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2회 A책형 문)

① 유럽은 신세계였고, 아메리카는 구세계였다. (X) → 유럽은 구세계, 아메리카가 신세계
◆ ‘그러나 고고학적인 발굴과 미국의 해안 지방을 처음 밟은 유럽인 탐험가들의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인디언들이 처음에는 약 2000만 명에 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세계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콜럼버스가 도착한 이후 한두 세기에 걸쳐 인디언의 인구는 최대 95%가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디언들이 죽은 주된 요인은 구세계의 병원균이었다.’로 보아 유럽인 구세계의 병원균이 북아메리카인 신세계에 퍼져 인디언의 인구가 최대 95%가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인디언들은 구세계의 병원균에 대한 면역성이 없었다. (O)
◆ ‘인디언들이 죽은 주된 요인은 구세계의 병원균이었다. 인디언들은 그런 질병에 노출된 적이 없었으므로 면역성이나 유전적인 저항력이 전혀 없었다.’로 보아 인디언들은 구세계의 병원균에 대한 면역성이 없었다는 문장은 옳다.

③ 만단족 인디언들의 인구 감소는 백인들의 무기 때문이었다. (X) → 천연두 때문
◆ ‘만단족 인디언들은 세인트루이스에서 미주리 강을 타고 거슬러 올라온 한 척의 증기선 때문에 천연두에 걸렸다. 만단족의 한 마을은 몇 주 사이에 인구 2000명에서 40명으로 곤두박질쳤다.’로 보아 만단족 인디언들의 인구 감소는 천연두 때문이었다.

④ 콜럼버스 이전에 북아메리카에는 100만 명가량의 인디언이 있었다. (X) → 2000만 명
◆ ‘고고학적인 발굴과 미국의 해안 지방을 처음 밟은 유럽인 탐험가들의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인디언들이 처음에는 약 2000만 명에 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로 보아 100만 명이 아닌 약 2000만 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5) 정답: ②

6. <보기>의 괄호에 알맞은 한자성어는? (2018서울시2회 A체형 문6)

<보기>

일을 하다 보면 균형과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일의 수행 과정에서 부분적 잘못을 바로 잡으려다 정작 일 자체를 뒤엎어 버리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 때문이다. 흔히 속담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부분적 결점을 바로잡으려다 본질을 해치는 ()의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①개과불린(改過不吝) ②경거망동(輕舉妄動) ③교각살우(矯角殺牛) ④부화뇌동(附和雷同)

문제6)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2회 A체형 문6) (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10, 14, 15, 22, 23, 28, 29, 55, 60, 61, 293, 295, 304, 305)

◆ ‘부분적 결점을 바로잡으려다 본질을 해치는’으로 보아 ③교각살우(矯角殺牛)가 정답이다.

①개과불린(改過不吝): 改(고칠 개) 過(지날 과) 不(아닐 불) 岑(아낄 린)

1)의미: 허물 고치는 것을 아끼지 아니함.

②경거망동(輕舉妄動): 輕(가벼울 경) 舉(들 거) 妄(망령될 망) 動(움직일 동)

1)의미: 경솔하여 생각 없이 망령되게 행동함. 또는 그런 행동. ‘경망한 행동’으로 순화

③교각살우(矯角殺牛) (O): 矯(바로잡을 교) 角(뿔 각) 殺(죽일 살) 牛(소 우)

1)矯角殺牛(교각살우): 矯(바로잡을 교) 角(뿔 각) 殺(죽일 살) 牛(소 우).

a)의미: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잘못된 점을 고치려다가 그 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쳐 오히려 일을 그르침을 이르는 말.

* 유의어 < 과불급, 과유불급, 교왕과정, 교왕과직, 소탐대실 >

1)過不及(과불급): 過(지날 과, 재양 화) 不(아닐 불, 아닐 부) 及(미칠 급).

a)의미: 능력 따위가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한 상태에 있음.

2)과유불급(過猶不及): 過(지날 과, 재양 화) 猶(오히려 유) 不(아닐 불) 及(미칠 급).

a)의미: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으로, 중용(中庸)이 중요함.

b)영어사전: greedy(탐욕(貪慾)스러운), avaricious(탐욕(貪慾)스러운), covetous(탐내는, 갈망(渴望)하는).

3)矯枉過正(교왕과정): 矯(바로잡을 교) 枞(굽을 왕) 過(지날 과, 재양 화) 正(바를 정).

a)의미: 굽은 것을 바로잡으려다가 정도에 지나치게 곧게 한다는 뜻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다가 너무 지나쳐서 오히려 나쁘게 됨을 이르는 말.

4)矯枉過直(교왕과직): 矯(바로잡을 교) 枞(굽을 왕) 過(지날 과, 재양 화) 直(곧을 직)

a)의미: 굽은 것을 바로잡으려다가 정도에 지나치게 곧게 한다는 뜻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다가 너무 지나쳐서 오히려 나쁘게 됨을 이르는 말.

5)小貪大失(소탐대실): 小(작을 소) 貪(탐낼 탐) 大(큰 대) 失(잃을 실).

a)의미: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음.

④부화뇌동(附和雷同): 附(붙을 부) 和(화할 화) 雷(우레 뇌(뢰)) 同(한가지 동)

1)의미: 우레 소리를 따라 함께한다는 의미로, 중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

* 유의어 < 부화수행, 수중축대, 아부영합, 여진여퇴, 추우강남 >

1)附和隨行(부화수행): 附(붙을 부) 和(화할 화) 隨(따를 수) 行(다닐 행)

a)의미: 중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만 따라서 그가 하는 짓을 따라 행동함.

2)隨衆逐隊(수중축대): 隨(따를 수) 衆(무리 중) 逐(쫓을 축) 隊(무리 대)

a)의미: 무리를 따르고 대열을 쫓는다는 뜻으로, 자기의 뚜렷한 주관이 없이 여러 사람의 틈에 끼어 덩달아 행동함을 이르는 말.

3)阿附迎合(아부영합): 阿(언덕 아) 附(붙을 부) 迎(맞을 영) 合(합할 합)

a)의미: 자기의 뚜렷한 주관이 남의 말에 아부(阿附)하며 따름.

4)旅進旅退(여진여퇴): 旅(나그네 여(려)) 進(나아갈 진) 旅(나그네 여(려)) 退(물러날 퇴)

a)의미: 함께 나아가고 함께 물러난다는 뜻으로, 일정한 주견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을 이르는 말.

5)追友江南(추우강남): 追(쫓을 추/따를 추) 友(벗 우) 江(강 강) 南(남녘 남)

a)의미: 친구(親舊) 따라 강남(江南)간다는 뜻으로 자기의 뚜렷한 주관이 없이 남의 말에 아부(阿附)하며 따름.

문제6) 정답: ③

7. <보기>의 단어에 공통으로 적용된 음운 변동은? (2018서울시2회 A체형 문7)

<보기>

• 꽃내음[꼰내음]

• 바깥일[바깥닐]

• 학력[항녁]

- ① 중화 ② 첨가 ③ 비음화 ④ 유음화

문제7)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2회 A체형 문7) (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329, 332, 333, 337, 443, 449)

① 중화(中和): 서로 다른 요소가 특정한 조건에서 별별 기능을 잃고 구별되지 아니함. 또는 그런 현상. 예를 들어, ‘날’, ‘낫’, ‘낫’, ‘낱’ 따위에 쓰인 받침소리는 모두 ‘ㄷ’으로 발음된다.

② 첨가(添加):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脫落), 없던 음운이 추가되는 현상.

③ 비음화: 끝소리가 파열음인 음절 뒤에 첫소리가 비음인 음절이 연결될 때, 앞 음절의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 어떤 음의 조음(調音)에 비강의 공명이 수반되는 현상.

◆ 비음(鼻音): 입 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ㄴ/ㅁ/ㅇ’ 따위가 있다.

◆ 파열음: 폐에서 나오는 공기를 일단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 ‘ㅂ’, ‘ㅃ’, ‘ㅍ’, ‘ㄷ’, ‘ㅌ’, ‘ㅌ’, ‘ㅌ’, ‘ㄱ’, ‘ㅋ’, ‘ㅋ’ 따위가 있다.

◆ 꽃내음[꼰내음]: 앞 음절의 파찰음(ㅊ)이 비음(ㄴ)으로 바뀜 < cf. 파찰음: 파열음과 마찰음의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는 소리. ‘ㅈ’, ‘ㅉ’, ‘ㅊ’ 따위가 있다. >

◆ 바깥일[바깥닐]: 앞 음절의 파열음(ㅌ)이 비음(ㄴ)으로 바뀜

◆ 학력[항녁]: 앞 음절의 파열음(ㄱ)이 비음(ㅇ)으로 바뀜

☺영보이 암기tip) 비음을 내는 나무야 (ㄴㅁㅇ)

나 무 야 ~ 나 무 야 ‘비음’을 내는 나 무 오 ~ ♪ ♪ ♪

- ④ 유음화: ‘ㄴ’이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변하는 현상. ‘한라’가 [할라], ‘실눈’이 [실룬]이 되는 것 따위이다. <유음: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 보내면서 내는 소리. 국어의 자음 ‘ㄹ’>

문제7) 정답: ③

8. 밑줄 친 단어의 품사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서울시2회 A체형 문8)

- ①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의존명사>
 나도 그 사람만큼 할 수 있다. <조사>
② 오늘은 바람이 아니 분다. <부사>
 아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감탄사>
③ 그 아이는 열을 배우면 백을 안다. <명사>
 열 사람이 백 말을 한다. <관형사>
④ 그는 이지적이다. <명사>
 그는 이지적 인간이다. <관형사>

문제8)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2회 A체형 문8) (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419, 426)

- ①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의존 명사> (O) / ‘만큼’ 앞에 용언(동사, 형용사)이 오면 이 때 ‘만큼’은 의존 명사이다. /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나도 그 사람만큼 할 수 있다. <조사> (O) / ‘만큼’ 앞에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이 오면 이 때 ‘만큼’은 ‘조사’이다. / 조사는 앞말과 붙여 쓴다.

- ② 오늘은 바람이 아니 분다. <부사> (O) / 이 문장에서 ‘아니’는 용언 앞에 쓰여 부정이나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부사이다.

 아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감탄사> (O) / 이 문장에서 ‘아니’는 놀라거나 감탄스러울 때, 또는 의아스러울 때 하는 말로 감탄사이다.

- ③ 그 아이는 열을 배우면 백을 안다. <명사> (X) → 수사

 ↓

 ◆ 숫자(백)에 조사(을)이 붙으면 ‘수사’이다.

 열 사람이 백 말을 한다. <관형사> (O)

 ↓

 ◆ 숫자(백)가 직접 명사(말)를 꾸미면 관형사이다.

- ④ 그는 이지적이다. <명사> (O) / ‘이지적(理智的)’에 조사(이다)가 붙으면 명사이다.

 그는 이지적 인간이다. <관형사> (O) / ‘이지적’이 직접 체언(인간)을 꾸미면 관형사이다.

문제8) 정답: ③

9. 1960년대 한국 문학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서울시2회 A체형 문9)

- ① 전후 문학의 한계에 대한 극복이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 ② 4·19혁명의 영향으로 현실비판문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 ③ 참여문학과 순수문학 진영 간의 논쟁이 발생하였다.
- ④ 민족문학과 민중문학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문제9)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2회 A체형 문9)

- ① 전후 문학의 한계에 대한 극복이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O)

◆ 한국전쟁(1950~1953) 이후 전쟁을 소재로 한 문학이 다수 발표되었는데, 1960년대에는 이러한 전후 문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문학이 많이 소개되었다.

- ② 4·19혁명의 영향으로 현실비판문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O)

◆ 1950년대 사회에는 독재 정치, 억압, 부정선거 등이 만연해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여 4·19혁명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현실을 자유롭게 바라보고 외칠 수 있는 현실비판문학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③ 참여문학과 순수문학 진영 간의 논쟁이 발생하였다. (O)

◆ 1960년대에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반영하는 참여문학 진영과 이와는 대조적으로 문학은 그저 순수성을 간직해야 한다는 순수 문학 진영 간의 논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 참여 문학: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띠며, 사회 개혁에 기여한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

◆ 순수 문학: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는 문학. 사상·주의를 다루지 않으며, 흥미·위주의 대중 통속 문학과도 구별된다.

- ④ 민족문학과 민중문학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X) → 1970년대 특징

◆ 1970년대에는 유신정권으로 인해 민중들의 분노가 많았다. 억압된 현실을 고발하고 저항하는 민족문학과 민중문학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문제9) 정답: ④

10. <보기>에서 밑줄 친 부분의 발음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서울시2회 A체형 문10)

<보기>

손 자 : 할아버지. 여기 있는 ⑦ 밭을 우리가 다 매야 해요

할아버지 : 응. 이 ⑧ 밭만 매면 돼.

손 자: 이 ⑨ 밭 모두요

할아버지 : 왜? ⑩ 밭이 너무 넓으니

- ① ⑦ :[바슬]
- ② ⑧ :[반만]
- ③ ⑨ :[반]
- ④ ⑩ :[바치]

문제10)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2회 A체형 문10) (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책 p.441, 453)

① ㉠밭을: [바슬] (X) → [바틀]
◆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을)와 결합할 때에는 원래의 음대로 발음된다.
따라서 ‘ㅌ’이 ‘을’과 결합되어 연음되므로 [바틀]이 옳다.

- ② ㉡밭만: [반만] (O) / 음절의 끝소리 법칙으로 ‘ㅌ’이 [ㄷ]으로 발음되고 다시 [ㄷ]은 비음화 현상으로 인해 [ㄴ]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밭만: [반만]은 옳다.
③ ㉢밭: [밭] (O) / 음절의 끝소리 법칙으로 ‘ㅌ’이 [ㄷ]으로 발음된다.
④ ㉣밭이: [바치] (O) / 연음현상으로 [바티]가 되고 다시 구개음화 현상으로 [ㅌ]이 [ㅊ]으로 변해 최종적으로 [바치]로 발음된다. 따라서 밭이: [바치]는 옳다. 문제10) 정답: ①

11. <보기>의 비판대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서울시2회 A체형 문11)

<보기>

풀 매카트니는 도축장의 벽이 유리로 되어 있다면 모든 사람이 채식주의자가 될 거라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가 식육 생산의 실상을 안다면 계속해서 동물을 먹을 수 없으리라고 그는 믿었다. 그러나 어느 수준에서는 우리도 진실을 알고 있다. 식육 생산이 깔끔하지도 유쾌하지도 않은 사업이라는 것을 안다. 다만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싶지 않다. 고기가 동물에게서 나오는 줄은 알지만 동물이 고기가 되기까지의 단계들에 대해서는 짚어 보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동물을 먹으면서 그 행위가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조차 생각하려 들지 않는 수가 많다. 이처럼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는 불편한 진실을 의식하지만 동시에 다른 수준에서는 의식을 못하는 일이 가능할 뿐 아니라 불가피하도록 조직되어 있는 게 바로 폭력적 이데올로기다.

- ① 채식주의자 ② 식육 생산의 실상 ③ 동물을 먹는 행위 ④ 폭력적 이데올로기

문제11)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2회 A체형 문11)

① 채식주의자 (X): ‘풀 매카트니는 도축장의 벽이 유리로 되어 있다면 모든 사람이 채식주의자가 될 거라고 말한 적이 있다.’로 보거나 글 전체를 보더라도 어디에도 채식주의자를 비판대상으로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채식주의자를 지지하는 입장을 엿볼 수 있다.

- ② 식육 생산의 실상 (O): ‘우리가 식육 생산의 실상을 안다면 계속해서 동물을 먹을 수 없으리라고 그는 믿었다. ~ 식육 생산이 깔끔하지도 유쾌하지도 않은 사업이라는 것을 안다.’로 보아 ‘식육 생산의 실상’을 비판하고 있다.
③ 동물을 먹는 행위 (O): ‘동물을 먹으면서 그 행위가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조차 생각하려 들지 않는 수가 많다’로 보아 ‘동물을 먹는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폭력적 이데올로기 (O):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는 불편한 진실을 의식하지만 동시에 다른 수준에서는 의식을 못하는 일이 가능할 뿐 아니라 불가피하도록 조직되어 있는 게 바로 폭력적 이데올로기다.’로 보아 ‘폭력적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11) 정답: ①

12. 나이와 한자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2018서울시2회 A체형 문12)

- ① 62세 - 화갑(華甲) ② 77세 - 희수(喜壽)
③ 88세 - 백수(白壽) ④ 99세 - 미수(米壽)

문제12)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2회 A체형 문) (영보이 한자 super upgrade 초대박 적중 p.57, 59, 68, 69 / 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213)

① 62세 - 화갑(華甲) (X) → 진갑(進甲: 62세), 화갑(華甲: 61세)

② 77세 - 희수(喜壽) (O) / 喜(기쁠 희) 壽(목숨 수)

◆ 희수(喜壽): 나이 일흔일곱 살(77)을 달리 이르는 말.

cf. 稀壽(희수): 稀(드물 희) 壽(목숨 수) / 나이 일흔 살(70)을 달리 이르는 말.

◆ 70세인 ‘稀壽(희수)’에는 ‘禾(벼 화)’가 들어가고 77세인 ‘喜壽(희수)’에는 ‘士(선비 사)’가 들어간다.

☺영보이 암기tip) 벼(禾: 벼 화)를 잘 재배한 70세 노인은 77세에 선비(士: 선비 사)가 되었다고 한다.

③ 88세 - 백수(白壽) (X) → 백수(白壽: 99세), 미수(米壽: 88세)

④ 99세 - 미수(米壽) (X) → 미수(米壽: 88세), 백수(白壽: 99세) 문제12) 정답: ②

☺영보이 국어plus) ★나이를 나타내는 한자어

나 이	의 미
충년(沖年): 沖(화할 중) 年(해 년)	열 살 정도의 어린 나이.(10세)
지학(志學): 志(뜻 지) 學(배울 학)	15세, 배움에 뜻을 둔다.(15세)
과년(瓜年): 瓜(오이 과) 年(해 년(연))	여자의 과기(瓜期)에 다다른 나이(16세)
약관(弱冠): 弱(약할 약) 冠(갓 관)	스무 살(남자나이) 20세)
방년(芳年): 芳(꽃다울 방) 年(해 년)	여자나이 스무 살 정도의 꽃다운 나이(20세)
묘령(妙齡): 妙(묘할 묘) 齡(나이 령(영))	여자나이 스무 살 정도의 꽃다운 나이(20세)
묘년(妙年): 妙(묘할 묘) 年(해 년(연))	스무 살 정도의 꽃다운 나이(20세)
방령(芳齡): 芳(꽃다울 방) 齡(나이 령)	스무 살 정도의 꽃다운 나이(20세)
이립(而立): 而(말 이을 이) 立(설 립)	서른 살을 의미함.(30세)
이모(二毛): 二(둘 이) 毛(털 모)	서른두 살을 의미함.(32세)
이모지년(二毛之年)	두 번째 털이 나기 시작(始作)하는 나이라는 의미로, 서른두 살을 말함.(32세)
불혹(不惑): 不(아닐 불) 惑(미혹할 혹)	미혹(迷惑)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마흔 살을 이름.(40세)
망오(望五): 望(바랄 망) 五(다섯 오)	쉰을 바라본다는 뜻으로, 나이 마흔하나를 이르는 말.(41세)
상년(桑年): 桑(뽕나무 상) 年(해 년)	마흔 여덟 살.(48세)
지명(知命): 知(알 지) 命(목숨 명)	공자가 쉰 살이 되어서 천명(天命)을 알았다고 함.(50세)
지천명(知天命): 知(알 지) 天(하늘 천)命(목숨 명)	쉰 살을 말함.(50세)
애년(艾年): 艾(쑥 애) 年(해 년)	쉰 살. 머리털이 하얘져 쑥과 비슷한 색깔임.(50세)
장가(杖家): 杖(지팡이 장) 家(집 가)	집에서 지팡이를 짚을 나이. 쉰 살을 의미함.(50세)
이순(耳順): 耳(귀 이) 順(순할 순)	예순 살을 의미. 공자가 60세에 귀로 듣는 대로 전부 이해(理解)하게 되어 귀가 순해졌다는 의미.(60세)

나이	의미
화갑(華甲): 華(꽃 화) 甲(갑옷 갑)	예순 한 살. 같은 말로 회갑(回甲) 또는 환갑(還甲)등이 있음.(61세)
회갑(回甲): 回(돌아올 회) 甲(갑옷 갑)	61세. 예순한 살(만 60세)
환력(還曆): 還(돌아올 환) 曆(책력 력)	61세. 예순한 살(만 60세)
망칠(望七): 望(바랄 망) 七(일곱 칠)	일흔을 바라본다는 의미. 예순 한 살을 말함(61세)
주갑(周甲): 周(두루 주) 甲(갑옷 갑)	61세. 예순한 살(만 60세)
진갑(進甲): 進(나아갈 진) 甲(갑옷 갑)	환갑(還甲)보다 한 해 더 나아간다는 의미로, 예순 두 살을 일컬음.(62세)
종심(從心): 從(좇을 종) 心(마음 심)	공자가 일흔 살이 되어 마음대로 행하여도 도(道)에 지나치지 않았다고 함.(70세)
희년(稀年): 稀(드물 희) 年(해 년)	일흔 살 (70세)
희수(稀壽): 稀(드물 희) 壽(목숨 수)	일흔 살 (70세)
희수(喜壽): 喜(기쁠 희) 壽(목숨 수)	희(喜)자는 숫자 칠로도 사용하여 희수(喜壽)는 칠+칠 살, 즉 일흔일곱.(77세)
산수(傘壽): 傘(우산 산) 壽(목숨 수)	산(傘)자는 팔(八)과 십(十)을 팔십(八十)으로 보아 나이 여든 살을 의미함.(80세)
망구(望九): 望(바랄 망) 九(아홉 구)	아흔을 바라본다는 의미. 여든 한 살을 말함.(81세)
망구순(望九旬)	아흔을 바라본다는 의미. 여든 한 살을 말함.(81세)
미수(米壽): 米(쌀 미) 壽(목숨 수)	미(米)자를 살펴보면 팔십팔(八十八)이 됨. 여든 여덟 살.(88세)
구순(九旬): 九(아홉 구) 旬(열흘 순)	아흔 살. (90세)
구질(九秩): 九(아홉 구) 秩(차례 질)	아흔 살. (90세)
졸수(卒壽): 卒(마칠 졸) 壽(목숨 수)	아흔 살. (90세)
망백(望百): 望(바랄 망) 百(일백 백)	백을 바라본다는 의미. 아흔 한 살을 말함.(91세)
백수(白壽): 白(흰 백) 壽(목숨 수)	백(百)에서 하나[一]를 빼면 백(白). 아흔 아홉 살. (99세)
상수(上壽): 上(위 상) 壽(목숨 수)	사람의 나이를 상·중·하로 나누어 그 중 가장 많은 나이를 상수(上壽)라 함. 백 세 이상을 말함. (100세)
기이(期頤): 期(기약할 기) 頤(턱 이)	사람 나이 백 살을 말함. (100세)
기이지수(期頤之壽): 期(기약할 기) 頤(턱 이) 之(갈 지) 壽(목숨 수)	사람 나이 백 살을 말함. (100세)

13. 맞춤법 표기가 가장 옳은 것은? (2018서울시2회 A체형 문13)

- ① 이렇게 하면 되?
② 이번에는 꼭 합격할께요.
③ 서로 도우고 사는 게 좋다.
④ 그 사람은 제가 잘 압니다.

문제13)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2회 A체형 문13) (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책 p.275, 300, 431)

- ① 이렇게 하면 되? (X) → 되어(O) / 돼(O)
② 이번에는 꼭 합격할께요. (X) → 합격할게요
③ 서로 도우고 사는 게 좋다. (X) → 돋고
◆ ‘돕다’는 ‘도와, 도우니, 돋고, 돋는’ 등으로 활용한다. < ‘ㅂ’불규칙>
◆ ‘ㅂ불규칙’ 용언 중 ‘가깝다’는 ‘가까워, 가까우니’ 등으로 활용하나 ‘돕다’와 ‘곱다’는 ‘와’와 결합하여 ‘도와, 고와’로 활용한다.

- ④ 그 사람은 제가 잘 압니다. (O)
◆ ‘알다’는 ‘알아, 아니, 아오’ 등으로 활용하고 ‘ㄴ, ㅂ, ㅅ’ 및 ‘-오, -ㄹ’ 앞에 받침 ‘ㄹ’이 올 때에는 탈락한다. 따라서 ‘알읍니다’가 아니라 ‘압니다’가 옳다.

문제13) 정답: ④

14.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다른 하나는? (2018서울시2회 A체형 문14)

- ① 그곳에서 갖은 고생을 다 겪었다.
② 우리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③ 인천으로 갔다. 그리고 배를 탔다.
④ 아기가 방글방글 웃는다.

문제14)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2회 A체형 문14) (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책 p.417, 421)

- ① 그곳에서 갖은 고생을 다 겪었다. (관형사)
◆ ‘갖은’은 ‘골고루 다 갖춘. 또는 여러 가지의’ 의미로 관형사이다. 관형사는 활용하지 않는다.

- ② 우리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부사) - 다음이 아니라 곧
③ 인천으로 갔다. 그리고 배를 탔다. (부사 / 접속부사)
④ 아기가 방글방글 웃는다. (부사) - 입을 조금 벌리고 소리 없이 자꾸 귀엽고 보드랍게 웃는 모양.

문제14) 정답: ①

15. 띠어쓰기가 가장 옳은 것은? (2018서울시2회 A체형 문15)

- ① 창조적 독해가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활용될 수 밖에 없다.
- ② 사소한 오해로 철수가 나하고 사이가 멀어졌다.
- ③ 아는 체하는 걸 보니 공부 깨나 했나 보다.
- ④ 동해로 가는김에 평창에도 들렸다 가자.

문제15)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2회 A체형 문) (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젯증 p.128, 129, 135, 143, 249)

- ① 창조적 독해가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활용될 수 밖에 없다. (X) → 수밖에
 - ◆ 이 문장에서 「밖에」는 「조사」로 (주로 체언이나 명사형 어미 뒤에 붙어)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 조사는 앞말과 붙여 쓴다. >
- ② 사소한 오해로 철수가 나하고 사이가 멀어졌다. (O)
 - ◆ 나하고: 「하고」는 상대로 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앞말과 붙여 쓴다.
 - ◆ 멀어지다: (동사) 「멀어지다」는 한 단어로 붙여 쓴다.
- ③ 아는 체하는 걸 보니 공부 깨나 했나 보다. (X) → 공부깨나
 - ◆ 공부깨나: 「깨나」는 어느 정도 이상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앞말과 붙여 쓴다.
- ④ 동해로 가는김에 평창에도 들렸다 가자. (X) → 가는V김에
 - ◆ 김: (의존 명사) 「-은/는 김에」 구성으로 쓰여 어떤 일의 기회나 계기. /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 「에」는 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문제15) 정답: ②

16. <보기>에 나타난 작품 감상의 관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8서울시2회 A체형 문16)

<보기>

나는 지금도 이광수의 『무정』 작품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껴. 특히 결말 부분에서 주인공 이형식이 “옳습니다. 우리가 해야지요! 우리가 공부하려 가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를 타고 가는 돈이며 가서 공부할 학비를 누가 주나요? 조선이 주는 것입니다. 왜? 가서 힘을 얻어오라고, 지식을 얻어 오라고, 문명을 얻어 오라고 …… 그리해서 새로운 문명 위에 튼튼한 생활의 기초를 세워 달라고 …… 이러한 뜻이 아닙니까?”라고 부르짖는 부분에 가면 금방 내 가슴도 울렁거려 나도 모르게 “네, 네, 네”라고 대답하고 싶단 말이야. 이 작품은 이 소설이 나왔던 1910년대 독자들의 가슴만이 아니라 아직 강대국에 싸여 있는 21세기 우리 시대 독자들에게도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에 큰 감동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

- ① 반영론적 관점
- ② 효용론적 관점
- ③ 표현론적 관점
- ④ 객관론적 관점

문제16)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2회 A체형 문16) (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책중 p.352, 497, 503, 504, 505)

◆ 이광수의 「무정」(1917)

- 1)이광수가 지은 장편 소설. 1917년에 『매일신보』에 연재된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 소설로, 민족주의적 이상과 계몽주의적 정열이 잘 나타난 초기 작품이다.
- 2)1910년대에는 전근대적 사회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서구 문학의 유입에 따라 우리 민족의 역량을 길러야한다는 민족주의적 계몽주의가 주류를 이루었다.
- 3)1910년대 이 시기에 발표된 이광수의 장편소설 '무정'은 신소설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였다.

① 반영론적 관점: 문학작품이 쓰여진 당시 사회상황을 중시

② 효용론적 관점(O): 문학이 독자에게 주는 영향, 독자와 작품과의 관계를 중시.

◆ '이 작품은 이 소설이 나왔던 1910년대 독자들의 가슴만이 아니라 아직 강대국에 싸여 있는 21세기 우리 시대 독자들에게도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에 큰 감동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로 보아 효용론적 관점이 정답이다.

③ 표현론적 관점: 작가의 체험, 사상, 감정 등을 중시

④ 객관론적 관점: 작품의 구성이나 작품 자체를 중시

문제16) 정답: ②

17. '본용언 + 보조 용언' 구성이 아닌 것은? (2018서울시2회 A체형 문17)

- ① 영수는 쓰레기를 주워서 버렸다.
- ②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아는 척한다.
- ③ 요리 맛이 어떤지 일단 먹어는 본다.
- ④ 우리는 공부를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알아 간다.

문제17)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2회 A체형 문17) (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책중 p.432, 456, 457)

① 영수는 쓰레기를 주워서 버렸다.

◆ 주워서(기본형: 줍다): 'pick up(줍다)'의 의미가 있으므로 본용언

◆ 버렸다(기본형: 버리다): 'throw away(버리다)'의 의미가 있으므로 본용언

②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아는 척한다.

◆ 아는(기본형: 알다): 'know'의 의미가 있으므로 본용언

◆ 척하다: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꾸밈을 나타내는 말로 보조동사이다. 따라서 보조 용언

③ 요리 맛이 어떤지 일단 먹어는 본다.

◆ 먹다: 'eat'의 의미가 있으므로 본용언

◆ 보다: 'look at'의 의미가 없으므로 보조 용언

④ 우리는 공부를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알아 간다.

- ◆ 알다: 'know'의 의미가 있으므로 분용언
- ◆ 가다: 'go'의 의미가 없으므로 보조 용언

문제17) 정답: ①

18.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8서울시2회 A체형 문18)

<보기>

화랑도(花郎道)란, 신라 때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마음과 몸을 닦고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려는 우리 고유의 정신적 흐름을 말한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화랑도(花郎徒)라 한다. 그 사회의 중심인물이 되기 위하여 마음과 몸을 단련하고, 올바른 사회생활의 규범을 익히며,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처할 때 싸움터에서 목숨을 바치려는 기풍은 고구려나 백제에도 있었지만, 특히 신라에서 가장 활발하였다.

- 변태섭, 『화랑도』중에서 -

- ① 용어 정의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돋고 있다.
- ② 자신의 체험담을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돋고 있다.
- ③ 반론을 위한 전제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돋고 있다.
- ④ 통계적 사실이나 사례 제시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돋고 있다.

문제18)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2회 A체형 문18)

① 용어 정의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돋고 있다. (O)

◆ '화랑도(花郎道)란, 신라 때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마음과 몸을 닦고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려는 우리 고유의 정신적 흐름을 말한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화랑도(花郎徒)라 한다.'로 보아 용어 정의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돋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자신의 체험담을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돋고 있다. (X)
 - ◆ 자신의 체험담을 제시한 것은 찾아볼 수 없다.
- ③ 반론을 위한 전제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돋고 있다. (X)
 - ◆ 반론을 위한 전제를 제시한 것은 찾아볼 수 없다.
- ④ 통계적 사실이나 사례 제시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돋고 있다. (X)
 - ◆ 통계적 사실이나 사례 제시한 것은 찾아볼 수 없다.

문제18) 정답: ①

19. <보기>의 시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8서울시2회 A체형 문19)

<보기>

가노라 ⑦ 三角山아 다시 보쟈 ⑤ 漢江水야

⑥ 故國山川을 써 누고자 ھ 랴마는

時節이 하 ⑧ 殊常하니 올동 말동 ھ 여라

- 김상현 -

- ① ㉠의 다른 명칭은 ‘인왕산’이다.
- ② ㉡은 여전히 사용하는 명칭이다.
- ③ ㉢의 당시 국호는 ‘조선’이다.
- ④ ㉣은 병자호란 직후의 상황을 뜻한다.

문제19)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2회 A체형 문19) (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초대박 적중 p.11)

가노라 ㉠ 三角山아 다시 보자 ㉡ 漢江水야 <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

㉡ 故國山川을 써 누고자 흐 랴마는 <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 랴마는 >

時節이 하 ㉢ 殊常 흐니 올동 말동 흐여라 < 시절이 하 수상하니 올동말동하여라. >

◆ ‘병자호란’ 패전 후 볼모로 끌려가는 김상현의 심회

- ① ㉠의 다른 명칭은 ‘인왕산’이다. (X) → 북한산

◆ 삼각산: ‘북한산’의 다른 이름.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의 세 봉우리가 있어 이렇게 부른다.

◆ 인왕산: 서울 서쪽, 종로구와 서대문구 사이에 있는 산. 전체가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암반이 노출된 것이 특징이다. 곳곳에 약수가 있고 경치가 아름다워 많은 시민이 소풍 장소로 즐겨 찾는 곳이다. 산의 서쪽 기슭에 있는 장삼을 입은 듯한 선바위는 예로부터 이곳에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잘 이루어졌다고 한다. 높이는 338미터.

- ② ㉡은 여전히 사용하는 명칭이다. (O)

◆ 한강: 우리나라 중부를 흐르는 강. 태백산맥에서 시작하여 황해로 흘러든다. 북한강·남한강의 두 물줄기가 남양주시에서 합류하며, 이 유역은 삼국 시대부터 중요시되어 왔다. 길이는 494.44km.

- ③ ㉢의 당시 국호는 ‘조선’이다. (O)

◆ 당시는 병자호란(1636) 때이므로 국호는 조선이 맞다.

◆ 병자호란(1636): 조선 인조 14년(1636)에 청나라가 침입한 난리. 청나라에서 군신(君臣) 관계를 요구한 것을 조선이 물리치자 청나라 태종이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침략하였다. 이에 인조는 삼전도에서 항복하고 청나라에 대하여 신(臣)의 예를 행하기로 한 굴욕적인 화약(和約)을 맺었다.

◆ 임경업: 조선 인조 때의 명장(1594~1646). 자는 영백(英伯). 호는 고송(孤松). 이괄의 난에 공을 세우고, 병자호란 때 중국 명나라와 합세하여 청나라를 치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김자점의 모함으로 죽었다.

- ④ ㉣은 병자호란 직후의 상황을 뜻한다. (O)

◆ 殊常(수상): 보통과는 달리 이상하여 의심스러움.

◆ ‘가노라 삼각산아’는 ‘병자호란’ 패전 후 볼모로 끌려가는 김상현의 심회를 읊은 작품이다.

◆ 김상현: 조선 중기의 문신(1570~1652). 자는 숙도(叔度). 호는 청음(淸陰)·석실산인(石室山人)·서간노인(西磵老人). 대제학, 이조 판서, 예조 판서, 공조 판서, 병조 판서를 지냈다. 저서에 『야인담록(野人談錄)』·『풍악문답(豐岳問答)』 따위가 있고, 『청구영언』·『따위의 가곡집』에 시조 4수가 전한다.

문제19) 정답: ①

20. <보기>는 어떤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소설 속 지명은? (2018서울시2회 A책형 문20)

<보기>

그러나 나는 돌아서서 전보의 눈을 피하여 편지를 썼다. ‘갑자기 떠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서 말로써 오늘 제가 먼저 가는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만 대화란 항상 의외의 방향으로 나가 버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써 알리는 바입니다. 간단히 쓰겠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제 자신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어렵잖으나마 사랑하고 있는 옛날의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옛날의 저를 오늘의 저로 끌어다 놓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하였듯이 당신을 햅볕 속으로 끌어 놓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할 작정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소식 드리면 당신은 ()을/를 떠나서 제게 와주십시오. 우리는 아마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쓰고 나서 다시 나는 그 편지를 읽어 봤다. 또 한번 읽어 봤다. 그리고 찢어 버렸다.

덜컹거리며 달리는 버스 속에 앉아서 나는 어디쯤에선가 길가에 세워진 하얀 팻말을 보았다. 거기에는 선명한 검은 글씨로 ‘당신은 ()읍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써 있었다. 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 ① 삼포 ② 서울 ③ 거제 ④ 무진

문제20) 정답 및 해설 (2018서울시2회 A책형 문20)

- ◆ 김승옥의 「무진기행」(1964): 김승옥(金承鉉)이 지은 단편 소설. 세속적인 삶을 벗어나려는 고립된 개인의 복잡한 심리를 내용으로 하여, 개인의 삶과 현실 속에 던져진 자기 존재의 파악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 ◆ 주인공 ‘나’는 무진의 연인에게 편지를 썼지만 서울로 돌아오라는 아내의 전보를 받고, 쓴 편지를 다시 읽는고 찢어 버린다. 그리고 현실과 타협하려(현재의 아내를 만나려) 서울로 향한다. 따라서 무진을 떠나 서울로 가는 것이므로 ‘당신은 (무진)읍을 떠나고 있습니다.’를 생각해낼 수 있다.

cf.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1973): 전지적 작가 시점 / 산업화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한탄함.

문제20) 정답: ④

- 영보이 저서 -

- ◆ 2019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한자 편” < 2018.08.03.금 판매 예정 >
 - ★ 2019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 “고사성어 편” < 2018.08.03.금 판매 예정 >
 - ◆ 2019영보이 포인트 마무리 국어 < 2018.08.03.금 판매 예정 >
- ❖ 2017영보이 공무원 국어 핵심 기출문제집 < 구판임 - 구매하지 마세요! >
- ❖ 2017영보이 공무원 한자(漢字)기출문제와 그의 친구들 < 구판임 - 구매하지 마세요! >

- ◆ 2019영보이 공무원 한국사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 2019영보이 공무원 행정법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 2019영보이 공무원 행정학 파이널 직전 체크 < 출간 예정 >

- ◆ 영보이 이메일 < youngboy0710@naver.com >
- ◆ 영보이 블로그 < <http://blog.naver.com/youngboy0710> >
- ◆ 공시 공부는 이렇게: <https://blog.naver.com/youngboy0710/221152935702>

2018서울시 2회 9급 A책형

아주 자세한 해설, 재미있는 암기tip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블로그나 이메일로...

출력할 때 페이지가 최대한 끊기지 않게 하여서 페이지가 많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